

유신 심장 비수 꽃은 교육지표 사건 주역들

30년만에 전남대서 '그날' 기리다

▲교육지표 사건=1978년 6월 27일 당시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의 국가주의적 요소 등을 정면 비판하고 학도호국단 설치 등 교련교육 강화에 따른 '학원 병영화'를 반대한 전남대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 전 연행·해직된 사건이다.

지금부터 만 30년 전인 1978년 6월 27일,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가 극에 달했을 때다. 이날 전남대학교 11명이 유신체제의 정신적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유신에 대한 단순한 비판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어제 기념식... "현 정부 촛불 민심 잘 읽어야"

살벌한 세상에 나온 한장의 성명서는 음산했던 한국사회를 깨우치는 한발의 총성이었다.

11명의 교수는 김두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방기·이석연·이홍길·홍승기 교수 4명을 제외하고 이방기 교수 등 3명은 30년의 세월을 못이기고 이미 작고했다.

이들이 3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교육지표' 사건 30주년을 맞아 27일 전남대에서 열린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작고한 배영남·이방기 교수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김두진·홍승기 교수 4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고 명노근 교수의 자리는 부인인 안성례씨가 대신했다.

전남대 인문대 앞 잔디밭에 세워진 '교육지표'를 기리는 조형물(가로 3.6m·세로 2.7m·

높이 2.7m) 앞에서 만난 이들은 모처럼 만난 기쁨에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뒤늦게서야 서로의 주름진 낯을 보며 "김 교수, 세월 많이 변했네" "잘 지냈어, 여전히 건강하네" 등 안부 인사를 건넸다.

30년 세월이 흘렀으나 그날을 기억하는 백발의 노교수들의 기억은 생생했다. 사건 이후 송기숙 교수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으며 나머지는 전원 해직됐다.

'교육지표' 사건 이후 스승들의 구속·해직에 항의해 시위를 벌인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18명도 구속됐다. 또 고 명노근 교수와 송기숙·이홍길 교수는 1980년 5·18 민중항쟁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들 3명의 교수는 5·18 이후 4년 뒤에야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7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인문대 앞 잔디밭에 세워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기리는 조형물 앞에서 당시 주역들이 모여 그때를 회상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현곤(74) 교수는 "30년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너무 좋아졌다. 우리들의 바람대로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정년 후 개인 저술·자서전 집필을 하거나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다. 하지만 시국과 관련해 이들의 열정은 여전했다. 30년 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화제는 단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반도 대운하 등 현 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홍길(68) 교수는 "교육지표 사건 이후 80년 5·18, 87년 6월항쟁 등을 통해 민주화의 뿌

리가 내린 줄 알았는데,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현 정부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데 되려 화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촛불집회는 촛불집회일 뿐이다. 색안경을 끼고 주도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본질적인 사안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처럼 직접 몸으로 뛰진 못하겠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과 후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42) 김장두



포 문화전당 미리 체험하세요 2012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 27일 열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화 시범사업 시연회'에 참가한 광주 송우초교 학생 40명이 미방진(魔方陣·자연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가로·세로·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지는 것)를 완성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촛불집회' 오늘 고비 될 듯

고시 후 민심 '쇠고기 재협상' → "MB정부 심판" 경찰, 어제 140여명 연행 ... 시위대와 충돌 우려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가 되면서 광주 촛불집회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 촛불집회의 구호가 '쇠고기 재협상'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바뀌었으며, 한나라당 광주시당 항의 방문 등을 통한 시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27일 오후 광주YMCA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중간평가와 촛불집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대토론회를 취소했다. 관보 게재가 된 이상 토론회도 촛불집회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8일 촛불집회 고비될 듯 = 광주·전남시국회의는 주말인 28일 금

남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갖기로 하고 촛불 3만여개를 준비했다. 정부의 관보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서울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국회의는 또 28일 집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퍼포먼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한나라당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다소 주춤했던 촛불시위의 열기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 다시 타오르는 만큼 관보게재 무효와 이명박 정부 심판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촛불시위 수백명 연행, 부상 잇따라 = 지난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 촛불집회에서 다시 물대포가 등장하는 등 격렬한 대치가 이어져 시민 140여명이 경찰에 연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경찰이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안 의원이 먼저 폭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여·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집회 주최측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물대포에 최후방을 섞어 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시위대간 물리적 충돌은 더욱 우려되고 있다. /광평기자 kps@kwangju.co.kr/연합뉴스

"경찰 촛불시위 강경 진압 유감"

경찰청 이어 서울경찰청 인권위 8명도 사임

경찰청 인권위원들에 이어 서울경찰청 인권위원들도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방식을 문제 삼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소속 12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은 27일 사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 27일 서울경찰청이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언을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순천경찰청은 27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 친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꾸민 황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소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 호남고속도로 서순천 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25t 화물차를 몰던 중 8중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부상자를 구하려던 이모(43·복사)씨를 숨지게 한 뒤 친구인 김모(36)씨에게 연락해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조사 받을 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이들은 "특히 고시 관보게재를 앞둔 25일 격양된 시민들을 살뜰하지 않은 채 행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대인진압은 경찰이 과연 인권에 대한 의의가 있는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한다"며 최근 경찰의 시위 진압이 인권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은 신 위원장을 비롯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의사 최병용씨, 변호사 정 원씨 등 8명이다. /연합뉴스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

서울시가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에 대해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시 직원 등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에 설치된 천막과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시는 지난 25일 서울광장에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8개 단체들에 "27일 낮 12시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체들이 이를 거부해 강제철거에 나서게 됐다. /연합뉴스

"휴일 축구대회 연습하다 다쳐도 산재"

무안경찰서 직원 승소

소속 기관의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쉬는 날 하다 부상을 당해도 공무원 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전남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참가에 대비해 연습경기를 하다 다친 김모(42)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돼 휴일 연습경기를 쉬는 날 하다 부상을 당해도 공무원 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무안경찰서 직원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전남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 경기에 대비해 일요일에 연습 경기를 하다 넘어져 왼쪽 아킬레스 건이 파열됐다.

그러나 공단은 "문제가 된 경기는 본 대회의 예선을 위한 연습이고 참가 대상도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가 아닌 참가 선수로만 한정돼 있으며 일요일에 훈련이 진행된 점으로 미뤄 무자격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

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경찰청장이 본선에 참가할 팀을 선발하게 하면서 대회 기간과 선수단 편성, 이들 등에 대한 여러 지급 등까지 경찰청에서 하달한 점과 무안경찰서장도 연습을 위해 선수단에 근무를 면제시켜준 점 등으로 볼 때 공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보조금 빼돌린 목사 집유 3년

광주교법 선고

광주교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7일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광주 노인·청소년 공동체 대표 김모(59)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직자인

김씨가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사대금, 임대보증금 등을 편취한 죄질은 좋지 않다"며 "그러나 김씨가 20년간 노인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온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아 법정구속된 김 목사는 이날 집행

유에 판결로 석방됐다.

한편 김 목사는 아내와 함께 지난 2001년 1월10일 광주 남구청에서 지급한 노인 무료 급식 보조금 900여만원을 입금받아 5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6년 말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또 지난 2005년 8월경부터 효사랑 복지문화센터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13억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름 뚫린 하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6월 28일
(음 5월 25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21~23°C
목포	흐리고 비	21~23°C
여수	흐리고 비	20~23°C
안동	흐리고 비	19~21°C
구례	흐리고 비	20~22°C
해남	흐리고 비	19~21°C
장흥	흐리고 비	19~22°C
고흥	흐리고 비	19~23°C
순천	흐리고 비	20~22°C
영광	흐리고 비	20~23°C
진도	흐리고 비	21~23°C
남원	흐리고 비	21~22°C
홍천	흐리고 비	17~20°C

서해남부
안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남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안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8:49 썰물 < 02:07
21:51 14:37
여수 밀물 < 03:45 썰물 < 10:16
16:55 23:01

▲해돋이 05:20 ▲해질 19:51 ▲달출 00:44 ▲달짐 14:3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9(일)	30(월)	7/1(화)	2(수)	3(목)	4(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6	20/28	20/29	21/29	21/25	21/29

친구 교통 사고, 범인 자처

30대 의리 때문에 사법처리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게 한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지만 결국 들롱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뿐만 아니라 의리를 지키려고 대신 조사를 받았던 친구도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순천경찰청은 27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해 놓고 친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꾸민 황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소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 호남고속도로 서순천 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25t 화물차를 몰던 중 8중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부상자를 구하려던 이모(43·복사)씨를 숨지게 한 뒤 친구인 김모(36)씨에게 연락해 김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조사 받을 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시오리 반출 유통

농장주 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오리를 신고하지 않고 육가공업체에 반출한 농장주 김모(57·정읍시 영원면)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AI 의심오리를 넘겨받아 가공 판매한 전남지역 모 육가공업체 직원 윤모(5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사육중인 정읍시 영원면 자신의 농장에서 집단폐사한 오리 6천여 마리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폐사하지 않은 같은 농장의 오리 6천 520마리를 육가공업체 직원인 윤씨에게 반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오리사육을 위탁한 육가공업체 직원인 윤씨는 4월 2일 김씨 농장의 오리가 집단폐사한 사실을 알고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오리 6천520마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통령에 격려 편지 보냈다 곤욕

○미국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격려 편지 보냈던 광주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빚바치는 항의전화로 난감

○27일 광주시 S초등학교에 따르면 6학년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은 이달 중순께 이 대통령에게 보낸 격려 편지가 공개되면서 항의전화가 쇄도해 곤욕.

○학교로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뒤 해당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을 문제삼았다는 것.

○이에 해당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에 과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학생들의 토론회 등을 가진 뒤 광우병 발원지 수입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며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악성댓글로 인해 학생들이 상처를 입었다. 이를 줄 알았으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